**인도 사두 썬다싱의 명상 2 (#51~#100)**



51.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보이지 않고 숨겨진 실재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명은 생명의

 활동이며 그 한 부분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그저 물질에 귀착시켜 버린다. 생명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누구도 피조물은 참된 내적 생명을 자연적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

이유는 생명이 그 물체 자체의 부분적인 표현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진상은 물질계에서는 표현하기가 불충분하고 영계에서만 가능하다.

52. 우리는 동물을 알아도 외적으로만 알뿐이고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다.

짐승은 온도와 운동과 성장 그리고 생명의 외면 현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외부에

나타난 표시에 불과하다. 그것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저 밖에서 보고만 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의 필요와 수용에 따라 그 피조물의 정체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앎으로 그 모양에 닮게 만들어진 우리 자신과 그 성질을 알게 된다.

53.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에 고정시킬 때 이는 실재를 알게 되는 것을

 방해한다. 신과 그를 경험하는 깊은 부분은 설명하기 참으로 곤란한 일이지만 그것을

 즐기며 행위 속에 넣을 수는 있다. 명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늘 나라의 큰 기쁨의 광맥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를 경험한 사람도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기에 세상은

이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

54. 그는 하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랐으나 육체는 병들어

 영과 육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영은 가는 것을 요구하고 육체는 뒤로 끌어 다녔다.

그러나 영으로 육을 이겼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 속에 무슨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처럼 그는 말로는 그 무엇을 설명할 수 없었으나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여

알려줄 수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한 의미이다.

55. 곤충이 그들의 안테나를 가지고 주위의 것을 느끼며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구별하듯

영적인 사람은 그들의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한다. 영혼이 그 자신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거꾸로 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많건 적건 간에 내적인 수용력이 있어 진리를 지각할 수 있으나

그들은 이것을 모르고 오히려 이를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일로 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을 필요로 한다.

알게 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냥 터득하는 것이 직관이다.

56. 살고자 하는 의지는 생명을 완전한 상태로 촉진시키려는 하나의 충동이며 그 목적을

위해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 간다. 그 의지를 통해 생명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때 그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른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자에게 생활은 무거운 짐이 된다.

57. 고생과 근심 때문에 피곤한 삶을 보내는 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억제하여 자살할

수는 있다 해도 그는 ‘믿으려고 하는 의지’로부터 놓여날 수는 없다.

그들은 영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이라

믿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인간의 불확실성을 고백한다. 내적 생활이나 사람의 인격은 너무도 확실

한 것으로 이는 장소를 옮기거나 죽는다 해도 변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만 변하게 할 수 있다.

방황하는 자들은 그들의 내적 요구를 창조자 가운데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방법으로 채운 결과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쌍한 존재가 된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행복에 대한 수용량 까지 잃고 죽게된다. 만약 그가 범죄의 감각을 잃어 양심이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영적인 자살을 행한 자이다. 그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을 죽였을 뿐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영혼마저 죽인다.

58. 참된 기쁨과 만족이 물질에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는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살았을

것이다. 또 불타와 마하비라 등의 귀족은 그들의 왕국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마음 속에 모셔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에 찬 생활의 비밀과 사실은 그 속에서 받고

살며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 누가 지식에 의해서만 이를 이해하려

한다면 죽기까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이다.

한 과학자가 새를 붙잡아 그 속 어디에 생명이 있는 가를 알려고 새를 해부했으나 허사였다

 이처럼 내적인 것을 단순히 지식만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분석의 결과 있던 생명까지

꺼져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 해부 당한 새는 죽어버린 것이다.

59. 이 큰 세계에 비하여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그처럼 큰데도 작은 인간의 마음 하나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에서 눈을 돌려 언제까지나 성장해 가는 영혼과 그 수용량을 위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평화를 얻는다. 물질적인 육체는 영혼과 영구히 함께

있을 수 없으며 어느 기간 동안 세상의 일을 위하여 영혼의 그릇으로 그 목적을 다한

후 육체는 그 연약함과 노쇠 때문에 쇠태 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영혼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한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해도 함께 있던 기간 동안 이룬 업적은 영원히 남는다.

이 일을 주의하여 육체로 거하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자유는 인간이 그 마음으로 선과 악 어느 것이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악에 끌려가는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됨을 뜻하고 결과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린다 죄를 버리고 진리를 추구할 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60. 주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님은 죽는 자의 주님이 아니고 산

자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의 의미 또한 주님의 일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를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다.

61. 선한 생애와 악한 생애는 금강석과 석탄과 같은 상이점이 있다. 그들은 동질인

탄소로 되어있지만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금강석은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햇빛을 반사하지만 석탄은 햇빛 속에서도 칙칙하고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같이 의의 태양은 선인이나 악인 어디든지 빛을 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따라 반사하는 것이다.

62. 인간의 상태는 지구와 같다. 우리는 해가 저물어 우리로부터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지구가 움직여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 의해

 끌리지 않는다면 지구는 공간 속에 잃어졌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도 또한

그 사랑의 인력으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끌고 계신 것이다.

63. 몸 안에 있는 한 지체가 아플 때 전신이 그것을 고치려고 분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신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상처를 고치고 영적 건강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 생명을 받음으로 이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벗어난

것뿐이지 이전보다 더 많은 싸움과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그 고난이 고통으로 느껴졌으나 지금은 그것이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이다.

이 싸움은 우리의 숨은 능력과 상태의 진보와 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주님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도울 것이며 세상과 사탄과

죽음을 이김으로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사물의 큰 것은 작은 것의

연속이고 그 집합체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되야 이미 그 작은 것의 승리 속에

큰 것에의 승리도 놓여있는 것이다.

64. 이 세상에서는 외적인 생활과 내적인 생활의 차이가 근소한 것 밖에 보이지 않으나

이에 답답해 하지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얼마 후에는 내외의 생활이

영구히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가 올 것이다. 외부는 바르게 내부에 응하며 내부는 바르게

외부에 적합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될 것이다.

65. 1921년 히말라야 산 중에 큰 산불이 일어났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 와중에 물건을

꺼내기 바빴으나 몇몇 사람은 우두커니 서서 나무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마리의 새가 아주 괴로워하며 둥지 위를 분주히 떠돌고 있었다 몇 초 후에 불은 더욱

 번져 새 둥지에 옮아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미 새는 그때까지도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덮고 있었다 한 순간이 지난 다음 불쌍한 새들은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 참으로 이상스러운 사랑이었다.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다. 그 어미 새의 사랑은 하나님께 있던 그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하찮은 새에게까지 부어주셨다.

이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키 위해 우리의 죄 속에서 생명을 내어 죽게 한 것이다.

66. 어느 나이 어린 소녀가 불교 노승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 했다.

그러나 노승은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소녀는 이에 아랑 곳

없이 말하였다. “나는 나의 부모를 알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밖에 살아 계시나

그리스도는 내 속에 살아 계십니다. 부모는 내 외적인 것을 기쁘게 하여주지만

그리스도는 내 속을 기쁘게 하여줍니다. 참된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노승은 그 어린 소녀로 24시간 동안 고난을 겪게 한 후 다시 그를 불렀다.

그러나 그 소녀는 마음 속으로 일어나는 참된 평화 속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도 피로하거나 미움과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노승이 소녀에게 고백하였다.

 “너는 나의 선생이다 나는 늙었고 너는 13세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제자이다.

 너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소녀는 설교는 할 수 없었으나 노승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다.

67. 어느 추운 겨울 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밤새도록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지샐

때 사단은 따스한 집과 그리운 가족 생각으로 그를 유혹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으며 기도 중에 깨어 기도하라는 영음을 들은 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동굴에서 나와 한 나무에서 약간의 잎새를

 뜯어먹었다. 그 잎은 딱딱하고 맛도 없는 것이었으나 실제 느끼기에는 아주 맛이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다는 증거다. 그는 사단에게 그리스도는

항상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체험적으로 확신 있게 외쳤다.

68. 그는 가정에서 편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결코 편안하지 못했으나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해 보임을 그의 아버지는 이상히 여겼다.

그것은 이전에 모르던 주님과 그 나라를 보고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려하는 자는 기도를 해야한다. 많은 무신론자들과

이교도들도 성경을 읽으나 기도 없이 지식으로만 깨달으려 하기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진리(지식)은 필요하나 이 문을 여는 것은 기도이다. 잃어버린 우리의 구주를

찾는 것이 인생의 급선무이다. 그를 찾아 당신만이 지금과 과거와 미래에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69. 많은 사람들이 천부에게 이런 저런 일을 구한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건만 우리는 그와 달리 기도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 또 우리는 혓바닥을 통해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행한 일은 그 반대를 기고하고 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본질이었다고 마음의 위장을 증거 한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입장이시다.

70. 어떤 이가 죽으면서 말을 남겼다. ‘내 일생은 외적으로 보면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으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한다.

긴 세월 동안 고난 속에서도 나는 놀랄만한 행복을 지속해왔다. 이 기쁨은 왕이 그의

 화려한 궁전 속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아주 쇠약해

 보였으나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고 그 눈에는 하늘 나라가 비치어 나왔다.

‘아마 잠시 후면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참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71. 날 때부터 앞 못보는 장님이 추운 겨울 날 양지에 앉았다. 그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을 받고는 그 열은 자신의 상상의 결과 몸 속에서 열이 순환하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동안 그 따스함의 정체에 대해 알려주어도

그는 태양을 본 적이 없어 불덩이가 허공 중에 걸려 있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신자들이 맛보는 기쁨과 희열은 마치 이와 같아 그것을 겪은 자 외에는 아무리 설명

을 해도 그 경이로움을 알 자가 없다.

72. 어느 사람이 문둥병자를 위문하였다 ‘참 안되었습니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사뭇 아픕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의 대답이 이러했다. ‘당신이 내게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신 마음이 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신비로워 저와 같이 몹쓸 병을 얻은 자가 반드시 괴로움 속에서만 일생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놀랄만한 평화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이 오히려 내게 친근하고 삶의 기쁨이 이 속에 있다면 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건강해 있다면 나는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둥병으로 인해 영혼의 문둥병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는 내 영적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다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러 오지만 저보다 더 큰 즐거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73. 이전에 사막을 여행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피곤하고 갈증을 느끼다 서편 먼 곳에

호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기뻐했다. 그는 희망을 걸고 그곳을 향해 장시간

걸었으나 그는 호수를 찾을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실제 아무 것도 없었는데 태양 빛의 반사에 의해 물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영혼도 만족을 위해 세상 이곳 저곳을 방황하고 다닌다.

그러나 신기루와 같이 보이는 샘물이 있어 사력을 다해 그것을 움켜쥐어 보면 그것에는

 영혼의 갈증을 풀어 줄만한 참된 샘물은 아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이곳 어디에도

그의 갈증을 풀어줄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갈증으로 죽으려 하였을 때 그의 영안이 열려 생명수가 샘을 이루며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사막을 지날 때 이 물을

 마시고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감옥도 지옥도 그 어느 고통스러운 곳도 우울한 곳도 다 하늘로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74. 벙어리가 과자의 단 맛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구원을 받은 자라도 그 입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존귀한 사실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다. 이 천적평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뿐이다. 바다 물이 아무리 짜다해도 그 속에 사는

고기의 살맛까지 짜지는 않는다. 이는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 때문이다.

만일 그 고기가 짠맛이 난다면 그것은 죽어 짠기가 배어있음에 틀림없다.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면 영혼이 그 가운데 빠져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도 세상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늘 주님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75. 그리스도 신자가 이 존귀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경과 두뇌

속에서만 살아있고 그 마음 속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 마음을 주님께

받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은 왕의 왕인 주님의 보좌이다.

하늘의 주부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인 것이다 그의 사랑을 얻으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쫒겨난다.

76. 그가 히말라야의 한 고산에서 길을 잃어 방황할 때 적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고의로 위험한 길을 가르쳐 주었다. 방황하다가 강을 만났을 때 밤은 오고 사방에 맹수는

들끓어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다

그때에 강 건너에 한 사람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다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구해 줄테니 걱정 마시오’ 그 사람은 아무 두려움도 없이 강을 건너와 그를 등에

업어 날랐다. 강을 다 건너 그가 감사하려 하니 그는 그곳에 없었고 모닥불도 흔적조차

없었다. 아아! 이는 주님이시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 없는 사랑으로 그를 지키고

계셨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이다.

77.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죄의 용서만을 바라보고 이를 구원이라 여긴다.

죄가 용서된 후에도 우리는 자신의 죄에 의해서 죽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용서된 후에도 그들의 죄 가운데 죽어간다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용서 뿐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빌어 죄를 씻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노라 하면서 자꾸 죄를 범한다면 그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범한 죄의 사함 받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된 성질이 고침을 받는 것이 주께서

주시려는 구원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용서라는 한 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참된 본질 여하에

따라서 이에 맞는 삶을 하늘에서 보내도록 하신다. 죄의 성질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는

저곳에서도 변하여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형성된 영혼의 아름다움의 상태에 따라

그 영혼의 본질 그대로의 삶이 위에서도 계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의미이다.

78.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번뇌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크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준비된 내적

평화를 주실 계기를 마련하신다.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진보와의 사이에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참된 신자라면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과 번뇌가 피조물 누구에게든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정도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자가 세상에 없다. 지금의 고통이라 보이는 것이 먼 후일의 참된

축복의 전조였던 것을 유한한 인간은 미리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알의 종자가 성장하여 햇빛을 받고 아름답게 자라기 전에 한 참을 어두운 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후 정해진 시기에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

79. 하늘나라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며 이 지상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다.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마치 작은 세균이 병을 일으켜 덩치큰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같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있듯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화를

입고 있다.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은 죄 가운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때이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고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산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 편에

영혼의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경고이다. 구원의 증거는 과자를 먹으면 단 맛을 느끼듯

내적인 신비로운 평화를 지니며 산다는 것이다.

열대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 내리는 눈을 알지 못하여 눈이나 얼음에 상하여 동상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르듯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가 고통의 근원이라 생각지 못한다.

80. 전도를 위하여 여러 마을을 돌 때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신비하게도 고통이라기

보다 기쁨이었다.  그는 그때마다 지옥 속에 있지 않고 천국 속에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의문을 남길 수 없는 명백한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고통이었고 지옥의 느낌 속에 살았으나

회개한 후부터는 고통은 여전히 역사 하였으나 그 고통은 느껴지지 않고 지상의 천국

속에 사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81. 1914년 7월 7일 험한 여행으로 지치고 극도의 굶주림과 강풍 속에 언덕길을 오를 때

무서운 돌풍이 불어 그를 언덕 밑의 한 동굴 속으로 처박아 넣었다. 그는 그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졌는데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 동굴은 하나님의 애무로 변하였다

그곳에 상처 따위가 있을 수 없는 낙원이었다. 돌풍은 사랑의 큰 여울이 되었고 폭우는

은혜의 비로 변하였으며 기갈은 만족으로 피곤은 평화로 변하였다.

또 십자가를 진 예수의 여러 모습이 환상으로 그 앞에 나타났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모습과 굶주리고 목말라 하시는 모습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피를 흘리시는 모습 그리고 그런 고난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골고다 길에서 넘어지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오! 이에 비하면 자신의 십자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감춘 만나였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는 그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십자가는 고통이 가득 찬 곳에서 평화의 물결 속으로

인도해 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82. 그는 투옥되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 그의 그리스도는 그를 감옥 속으로부터 해방하지

않지만 죄와 사탄으로부터 놓여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라도 또 감옥 속에서도

자유로웠다. 비록 그의 발에 족쇠가 걸리었다해도 그는 자유였다.

83. 한 수렵가가 사냥을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갔다. 한 나무에 꿀 집이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총을 밑에 두고 올라가 꿀을 핥기 시작했다. 꿀의 단 맛 때문에 그곳에 위험이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얼마 후 호랑이가 다가왔다. 이제야 그는 자기가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조금 있으면 호랑이가 가버리겠지 하며 또 호랑이가

덤비면 옆의 강으로 뛰어내리면 되겠지 생각하며 계속 꿀을 핥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강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다. 그제야 자신이 궁지에 빠진 것을

인식할 때 구원의 길이라고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위험은 곧 닥쳐왔다.

내려다보니 들짐승들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어 이윽고 그 나무는 옆으로 쓰러졌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이다.

84.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행위가 생명의 열매

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으로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살게 된다. 착한 생명은 천국에서 악한

 생명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된다. 인도교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만사가 잘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85. 자연을 넓게 보면 자연의 몸짓거리와 그의 얼굴이 보이고 그의 소리가 들리고

그의 기쁨과 신음을 느끼고 그가 하나의 커다란 몸체를 가진 진정한 모습인 그의 정체를

알게 된다. 인생을 너무 작게 보기에 밤낮으로 되풀이되는 세계 속에 답답함과 지루함이

인간을 아주 작게 만든다. 그러나 신은 인간을 너무도 크게 만들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의 거대한 형체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자연과 육체 속에 한없이 작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자연보다 넓고 큰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너무 작은 세계에서 산다 마음을 열면 큰 세계가 보인다. 자연과 세상의 사건은

 비록 그 몸체가 커다랗게 보일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 영적

힘으로 자신들을 돌보아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86. 어느 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에게 그는 저항 없이 온 몸을 맡기자 그는 오히려

그에게 감화되어 그를 돕는 자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바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의미이다.

87. 어떤 날 기도와 명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한 것을 강하게 느꼈다. 그의 마음은

하늘에 오를 듯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찬 세상에도 큰 기쁨이

숨겨진 무진장한 광맥을 보았다.

88. 주님이 이제까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인 외적인 나타남보다 더 근본적이다.

89. 이제 주님을 만난 자는 보트를 타고 홍수로 휘몰아치는 물결 위를 떠가는 것과 같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다면 누가 빼앗을 수 없다. 보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90. 만약 사람이 자신을 안다면 하나님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주의나 이론, 학문이나 지식은 내적인 소리와 감각을 말살시키며 기교적인 딴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기도와 명상에 의한다. 이 세상의 지식은 교수에 의하여

얻어지며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직관으로 얻어진다. 영적 지식과 내적

감각과 영혼의 힘은 죄로 인해 죽어버렸다. 빛은 이를 다시 살려준다.

91. 어느 한 소경이 점자로 성경을 읽으려 하였으나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얼어 한 자도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불 옆에 가서 손을 녹인 후에야 읽을 수 있었다. 이처럼 기도와

명상에 의하여 의의 태양의 빛과 성령의 불이 마음에 힘을 주고 눈을 뜨게 하여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 나라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92. 중생을 한 후에 성령은 이 세상의 말로서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영적

생명의 숨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하신다. 영에 의하여 거듭날 때에 영적인 말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자연히 배우는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뜻을 힘들이지 않고 배우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말은 그저 외적인 뜻을 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런 말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이 영적인

말은 육체의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해를 그 자체의 빛에 의하여서만 볼 수 있듯이 의의 태양도 오직 그 자체의 빛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이는 소경은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아는 것은 참된 뜻에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미 그 속에 죄가 깊고 타락하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로 인해 공기처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죽은 사람이 그 주위에 충만한 공기를 느끼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93. 죄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의 호흡도 기쁘게 여기지 않으며 신령과 진정

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으나 생령이 죄에 의해 죽었기에 주님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영원의 생명이다.

94.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제 자신과 모든 욕망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요구하는

것도 얻지만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는 스스로 영적 자살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하는 자는 탕자와 같이 제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자신이 남까지도 해치게 되나 이것도 모른다. 이 같은 연유로

살아있다는 것은 남을 위해 선과 자비를 베푸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95. 인간의 영혼은 육체보다 훨씬 뛰어나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데 기계 역할을 하는

 두뇌를 통하여 스스로 일할 수 있다. 이처럼 중생한 영혼이 주의 뜻을 따라 남에게

봉사하려 할 때 성령은 그들의 생명을 통하여 역사하며 자신을 나타내신다.

96. 의의 태양도 인격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달이 태양으로부터 빌어온

빛의 반사로 어둠을 비추는 것이지만 어떤 때에는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에 있어 어둠을

끼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

97. 진주를 캐는 잠수부가 바다 속에 잠입하여 잠시동안 숨을 멈추고 있지만 맑은 공기와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하여 물 위의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호흡함으로 영원한 세상을 지금 살 수 있다.

98. 눈에 보이는 푸른 나무 잎들을 보라 이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장들이다 강, 개울, 샘,

산과 들, 과일, 꽃 등은 완고한 마음도 녹이며 그들의 귀도 열리게 한다. 피조물 전체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인 피조물도 웃음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긴 혀가

주어진 인간은 묶긴 채로 침묵만 계속하고 있다.

이 존귀한 자연의 책이 그 저자를 그(선다싱)에게 소개한지 25년이 되지만 그 동안

그는 언제나 자신의 구주는 이 책 속에 소개된 그분과 꼭 같다는 것을 누구에게 배우지는

 않았으나 영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었다. 자연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할 줄

모르고 표현하지도 못하지만 이로 인해 조금도 그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주는데 영향을 방해받지 않았다. 그것은 이 자연의 영적 언어들이 주님의 말씀같이

영이요 생명인 까닭이다.

99.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독사가 가까이 와도 도망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드디어 그것에 물려 죽었다. 그리스도인도 생명은 있으나

자신을 구원하는데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로부터 도망할 수 있도록

풍부한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의 공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100.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에 죽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이 세상에서 영원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과 같은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참신자의 마음을 낙원으로 만든다.

우리의 이런 마음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된다.

Tags

명상 묵상